



축제현장에서 만난 뮤지컬 공연팀
‘야단법석’



“스님, 어느 사찰에서 오셨어요?”
“저희는 스님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공연단이에요.”
“어머나, 깜짝 속았네.”
타악뮤지컬 공연팀 ‘야단법석’이 겪는 가장 빈번한 해프닝이다. 스님도 속아버리는 진짜 같은 가짜 스님들의 수행이야기 ‘야단법석’의 허공(유형열·29), 현공(이재일·29), 천진(강준석·28), 아공(고병석·29), 무공(이재현·28), 마공(양진영·28)스님, 보살(김보영·30), 손미순(28)들과 대표 종인호 씨를 중앙대학교 축제현장에서 리허설이 끝난 후 만났다.

어느절 스님이냐고?
혀혀... 야단났네

백제예전 선·후배 인연 95년 시작
많은 시간 현대인에 맞는 예술 고민
단원간 종교의 벽 넘어 예술로 승화
완성도 위해 게 받고 삭발, 산사체행

백제예전 선·후배로 구성된 야단법석은 1995년 ‘전통타악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KBS 국악 대경연과 전주대사습놀이 대상을 수상한 국악 유망주였던 이들의 고민은 우리 몸속에 녹아있는 전통기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였다.
“답습되는 전통공연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문화의 흐름을 봤을 때 분명히 현대인에게 알맞은 예술적 형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많은 시간 고민했지요.” (홍인호)

오랜 고민 끝에 홍 대표가 생각해 낸 ‘틀을 깰 수 있는 우리 것’은 ‘불교’였다. 하지만 단원 중 불자는 홍 대표, 손 보살, 현공 스님 3명 뿐. 불교소재의 퍼포먼스에 개신교, 천주교 등 이웃종교를 가진 단원들의 종교적 거부감이나 갈등은 없었을까?

어릴 적부터 개신교 집안에서 자랐다는 무공. 종교의 다름보다 제일 처음 부딪혔던 벽은 ‘불교는 고무하다’라는 고정관념이었다. ‘명색이 퍼포먼스인데 불교는 이미지 자체가 정적이라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과연 선적인 불교가 요란한 타악 퍼포먼스와 절충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구수한 외모로 아줌마, 할머니 보살님들에게 인기만점인 허공 스님 이재일 씨도 독실한 개신교 가정 출신이다. 얼마 전 목사안수를 받았을 정도로 신앙심 깊은 어머니를 떠올릴 때 마다 그의 고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작품을 위해서는 종교를 뛰어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무대에 올라가면 나는 행자승이 되어야 한다’고 되뇌었죠. 어머니께도 종교가 아닌 예술로, 작품으로 봐달라고 이해를 구했어요.”
니름의 사정으로 한 차례씩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모두의 뜻을 모아 2000년 2월, 사나사 주지 화암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삭발을 했다. 또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배역에 몰입하기 위해 회양사, 삼화사, 송광사를 거처며 산사체행도 했다.
“산사에서 참선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부족한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또 불교에 대한 배타적인 편견들을 내안에서 지워버렸고요.”(무공)
산사수행을 거친 후, 3년 가까이 스님의 모습으로 공연해 온 그들은 결모습뿐인 ‘짜기승’이라 해도 분명 내면의 변화를 경험했다. ‘스님(배역)이 되고난 뒤 뭐가 제일 달라진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눈”이라는데 동감했다. 아이처럼 천진한 모습의 천진 스님 강준석 씨가 한마디 덧붙인다. “스님처럼 차려 입으니 품행도 단정해지더라고요.”
10년 가까이 함께 생활하면서 배우들의 실제 성격을 캐릭터에 반영시킨 홍 대표의 생각은 어떨까. 그는 “단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대한 시야가 넓어져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라며 배우들의 변화에 내심 뿌듯한 눈치였다.
내면의 변화를 느끼는 것은 배우들만이 아니다. 야단법석을 보러 온 관객들도 공연극에 몰입해 배우들과 함께 서서히 변화해 간다.
“어느 날 공연의 끝 무렵 ‘아제승’을 부르는데 무대 앞쪽에 계신 노부부가 기립박수 대신 기립합장을 하고 계셨어요. 불가에서 말하는 이심전심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현공)
이처럼 야단법석은 공연을 통해 불교의 고정된 이미지를 탈피, 관객에게 ‘재미있고 자연스러운 불교’로 다가갔다. 이웃종교에까지 불교문화에 대한 우호적인 관심을 일으킨 문화사절의 역할을 했다는 평도 듣는다. 이런 호평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도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며 고개를 끄는 ‘야단법석’의 가슴에는 꿈이 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인습을 타파하는 새로운 문화 양식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아직 저희들의 희망에 비해서 재정적, 환경적 여건들이 어렵긴 하지만 5년, 10년,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흐르더라도 사람들의 가슴으로 기억되는 공연을 할 겁니다.”
글 =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사진 = 고영매 기자 yjgo@buddhapia.com

◁ 뒷줄 왼쪽부터 허공, 보살1, 보살2, 현공, 앞줄 왼쪽부터 무공, 아공, 천진, 마공.



불자님들을 위한 Best 추천 상품

- 3,000여종의 불교문화 상품, 불교문화 상품의 대표주자 마하물

오랜 노력끝에 식물성 양초 개발한 **삼환양초**

15년간 불교 양초만 제조해 전념해 온 삼환양초에서는 그을음 및 연소시 냄새가 거의 없는 식물성 양초(Natural Candle)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존 양초는 석유에서 추출한 파라핀 왁스로만으로 제조하여 왔다. 삼환양초에서는 기존의 양초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그을음, 냄새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위해 많은 실험을 거쳐 개발하는 노력을 하여 오던 중 선진국 미국에서 대두(豆)로 추출한 왁스로 양초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양초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파라핀 원료 대비 4.5배에 이르는 재료(豆)로 초를 만드는 일은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오듯이 동남아 모처에서 (식용)팜유에서 추출한 왁스를 구매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 원료를 이용하여 식물성 양초(Natural Candle)를 제조 공급하게 되었다. 비록 현재는 완전한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초'에 관한 최고의 자부심을 자랑하는 삼환양초에서는 가까운 시일내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한다. 식물성 양초 구입처는 불교용품백화점 마하물에서 전화 및 인터넷 주문으로 가능하다.



식물성 양초 특허실용신안 No. 1-1-2002-5191666-11

제조방법 - 식물성왁스(팜유에서 추출한 왁스) + 파라핀왁스(공업용왁스) 혼합특수공법으로 제조 < 팜유란 야자열매에서 추출한 식물기름이며 국내에서는 라면의 튀김용으로 사용하여 중국 동남아 등지에 서는 모든요리에 사용하는 식물 식용유입니다.>

식물성 양초

- 식물성 양초의 특징
- 그을음이 없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을 준다.
- 양초 연소시 발생하는 냄새가 적다. (거의 없음)
- 양초 연소시간이 일반양초보다 약 20 ~ 30% 길어진다.
- 무공해 식물성양초(밀대) ₩56,000원(50개입)
- 무공해 식물성양초(톤타레) ₩60,000원(30개입)
- 무공해 식물성양초(원기둥) ₩48,000원(12개입)

삼환일반양초



용초 ₩78,400(20개입)



반야심경양초 ₩125,000원(64개입)
연화(사) ₩140,000원(40개입)

이트인기상품

침실출입문 전장에 달아 놓으면 풍경의 맑은 소리가 공간기운을 살리게 된다.
제품문의: 021732-1520



용무늬 풍경세트

판매가: 30,000원(2개1set)